

서교

김상용 목사 //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직전 대표회장,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 증경총회장,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당회장, 순복음청주신학교 학장

#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고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60:1)

저는 이 시간이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러운 순간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는 그 동안 배신하고 기만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시련이 다 끝나고 신성하게 전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60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금년 총회 표어를 설교 제목으로 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은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깨어 일어나 일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기만하지 말고 일어나서 일을 하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만방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사역에 관련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이스라엘은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타락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암울한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활짝 핀 꽃이 큰 빛을 보았고 사랑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마4:16).

예수께서 천국 복음의 빛을 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 받은 모든 자들이 복음의 빛을 발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는, 이 말씀은 우리 교단 총회에 소속된 모든 교회와 교역자들과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단이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이를 견지해야 합니다. 우리 교단은 성경대로의 복음을 전하는 교역자

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단은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을 귀중하게 여기는 회원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세 교단 통합과 분리의 과정에서 뚜렷하게 드러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 교단의 통합 과정은 이제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통합을 제의하고 요청한 분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통합 추진과정과 절차는 합법적이었고 완결했습니다. 통합된 교단이 사용하게 될 한벌도 만들었고 통합된 교단을 이끌어 나갈 임원들도 선임되었습니다. 통합 감사예배도 성대하게 드렸습니다. 그날 설교하신 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 날 세 교단 총회장들이 강단에 나서서 강대상 앞에서 손을 잡고 높이 들어 “우리는 통합되었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통합된 교단의 첫 총회에서 이렇지가 생겨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정말 의아하게 여겼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교단통합추진을 기회로 어떤 부정과 불의를 감추고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의 농간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대제사장들과 모의한 가롯 유다가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선생님 인병하십니까”라고 말하며 입을 맞추는 행동과 다를바 없습니다.

또 다른 율환한 뜻을 품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던 자들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기만하고 이탈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낮 뜨겁게도 성령운동을 하기 위해서 라고 변명하며, 혹은 자신들이 정통성을 가졌다고 나팔을 불어댈니다.

사랑하는 총회원 여러분, 우리 교단 총회에 무슨 잘 못이라도 있었습니까? 혐의한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우리 대표총회장님은 신의와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자기가 예기한 것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분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조용목 목사님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조 목사님이 우리 교단 총회를 지켜온 것이 무슨 이득을 추구하거나 총회장 자리를 탐해서 이었습니까? 전만의 말씀입니다. 은혜와 진리교회가 어떤 규모의 교회이며 교계에서 어떤 상태나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대표총회장님은 온갖 중상모략과 시

련에도 전혀 요동치 않으시고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참고 견디며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자신의 발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전의 이익과 헤로움을 따져서 우왕좌왕하는 사람은 주의 종이라고 부르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은 선과 의와 진실을 좇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주의 종답게 살아가려고 결심한 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연히 통합된 교단 총회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며 우리가 이를 지켜 행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교단 총회를 향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며 분발케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이익이 된다면 약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신의를 내뿜어 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보았습니까? 지난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저버리고 떠나갔는지.

성경 사사기에서 나오는 사사 임대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그가 임한 자손들과 전쟁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 사원하기를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던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릴게나이다” 하였습니다. 왜 그런 서약을 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임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독녀였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공로상 받으니까 우리 아들이 꽃다발 갖고 왔어요.

아버지가 승리하고 오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가서 영접하겠습니까? 그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기를 가장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사사 임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외동딸이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임대가 자기 딸을 보고 자기 웃을 찢으며 말하기를 “슬프다 네 딸이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케 하는 자 중의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였습니다. 그러하여 사랑하는 딸, 눈

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딸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은 주의 종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함부로 약속하지 말아야 하고,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세상이 성직자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정의와 진실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것도 두려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리배처럼 행동한다면 누가 존경하고 두려워 하겠습니까?

약속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은사 중에 무슨 은사가 제일 크다고 묻습니다. 그러면 성경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 기록된 은사들을 말합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그 외에 한가지 은사를 더 말합니다. “지리 지키는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자가 목회하면서 체면만 잡니다. 교회당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공연히 부정적인 말을 지어내고 교인들을 선동하여 이탈해 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로라 하는 사람들 쯤어 땅이 떠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당 건축이란 힘든 일인데 이런 일을 만나니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살펴보니 놀라운 것은 평소와 별로 나서는 일이 없던 평범한 교인들은 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아, 하늘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은 신앙생활하면서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자기 자리를 꼭 지키는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총성이란 무엇입니까? 신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총성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칭찬과 상을 주십니다. 기회주의자, 요령부리는 자는 주님께로부터 “도루묵” 취급 당합니다.

숫자와 세력이 선과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를 좇는 다수란 의미 없는 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좇는 소수를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착하고 의로운 자를 사랑하십니다. 과부 뜻이 다했을 증조모가 되는 복을 받은 까닭은 목전의 이익보다 착하고 옳은 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뜻은 흐로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극구 만류하는데도 한사코 시

어머니를 좇았습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에게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에게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에게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시나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장은 손해와 곤란이 있더라도 착하고 의로운 자는 훗날 좋은 결실을 보게 됩니다. 즉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기 때문에 따르고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 교단 총회를 따르고 지키는 것에 대하여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좇아 행하는 교역자들이 모인 조직체이다 라는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울 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나가 싸우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빛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여러분이 우리 교단에 소속된 교회와 회원이라는 사실을 명쾌하게 생각하십시오.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회원으로서 의무도 기쁘게 수행하십시오. 교단 행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 <영광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취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였습니다. 악과 불의와 거짓은 아무리 숨겨도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는 어둠속에 속한 것입니다. 사탄은 어둠의 권세 잡는 자입니다.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자신이 속한 곳이 어두운 곳을 깨닫게 되면 빛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예 저쪽 두 교단이 통합한다고 큰 소리로 떠들더니 결국 서로 비방하고 저중지란이 나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각기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상대편을 속이는 계책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습이 가관입니다. 그렇게 하여 합침될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뒤늦게나마 그 실상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어둠의 일을 벗어 버리고 빛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의 영광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들 위에 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수하여 온 정체성을 계속 견지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며 나아가는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임하여 있을 것입니다. 빛을 보고 모이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게 될 것입니다.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 총회산하 2011학년도 지방신학교

# 신학교 편입생 모집요강

**순복음제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운영
- 주 소 : 제주도 제주시 일도동 400-3
- T E L : 064)750-9843, 011-639-6961
- F A X : 064)722-2635
- e-mail : iomm@hanmail.net

(학장 표 순 호 목사)

**순복음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운영
- 주 소 : 부산시 수영구 남원1동 10-9번지
- T E L : 051)981-0191
- F A X : 051)981-0196

(학장 최 철 권 목사)

**순복음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592-11번지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2-7003

(학장 김 영 인 목사)

**순복음전북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 제도, 본 교단 총회 신학, 목회대학원 진학, 목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35-4-107
- T E L : 063)251-3978-9
- F A X : 063)251-3980
- e-mail : hyun\_sj@naver.com

(학장 임 종 달 목사)

**순복음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과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의 장학금, 목회사역사, 사모, 자비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정동 305-6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74-2265
- e-mail : ho-g@hanmail.net

(학장 김 상 용 목사)

**순복음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여목사 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성동 1178번지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ungdaman@hanmail.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순복음강원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운영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37번지
- T E L : 033)268-7153
- e-mail : hok1@nate.com

(학장 권 용 덕 목사)

**기독교연합신학연구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운영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8-5
- T E L : 031)441-0777 H.P: 010-5089-3862
- F A X : 031)441-0064
- www.ucts.org

(학장 김 피 터 목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  
THE KOREA ASSEMBLIES OF GOD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 총회본부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5가 90-3  
TEL:02)2675-5181~3 FAX : 02)2675-9839